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고미숙(제주대학교)

Ko, Mi-sook. 2005. A Study on the Boundary Tones of Intonational Phrases in the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4, 1-16. We examined the tone patterns according to sentences of the Jeju dialect by considering the boundary tones of the Intonational Phrase of the native Jeju speakers (aged between 70s and 80s). We also examined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tterns of Accentual Phrase and the Seoul dialect.

Taking the regional balance into consideration, we classified regions into Jeju city, Seogwipo city, BukJeju county and NamJeju county. We have selected four areas from each region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a total of 32 people (one man and one woman for each region).

The intonational patterns in each sentence were analyzed by using the tone syllables utilized in the K-ToBI(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labelling system. As a result, the IP boundary tones in the Jeju dialect were L%, H%, LH%, HL%, LHL%, HLH%, HLHL%, LHLH%, LHLHL%, HLHLH%, showing resemblance to that of the Seoul dialect.

In most of the intonational patterns,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e Seoul dialect. The AP pattern mostly consists of LH, which starts in a low tone, increases slowly and attains a high tone in the last syllable. The AP, however, often goes down slowly.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경계성조(boundary tone), 억양구(IP, Intonational Phrase), 강세구(AP, Accentual Phrase), 고조(High tone), 저조(Low ton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S2029)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전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0대 방언 사용자의 억양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제주방언의 문장 유형별 억양 구 경계 성조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제주방언을 유형별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고, 의문문은 다시 가부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선택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문장 유형의 억양 패턴 분석은 K-ToBI (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성조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K-ToBI는 표준 서울말의 운율을 전사하기 위한 규약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서울말의 억양 구조를 억양구(IP, Intonational Phrase)와 강세구(AP, Accentual Phrase)로 나누고 있다.

강세구는 일반적으로 음운론적 단어보다는 크고 억양구보다는 작다.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로 구성되며, 억양구를 구성하는 마지막 강세구의 끝 음절에 실현되는 음높이 유형을 억양구의 경계성조(Boundary Tone)라 한다. 음성학에서의 경계란 연속적인 발화의 흐름을 끊어서 일정한 의미 정보별로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는 음향 요소로서(Jun, 1993), 일반적으로 이들의 운율적 변화는 피치의 변화(pitch change), 경계 앞 음절의 장음화(preboundary lengthening), 쉼(pause)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주된 억양은 바로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에서 실현되는 음높이 유형이다. 억양구 끝의 경계 성조는 X%로 표기하는데, 한국어 표준어에서 X%는 다음의 9개 억양구 경계성조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H%, L%, HL%, LH%, HLH%, LHL%, HLHL%, LHLH%, LHLHL% 등이다.

제주방언도 중부방언, 전남방언과 같이 하나의 발화 문장의 운율구조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억양구와 그 하위 층의 강세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이숙향, 1999). 제주방언의 운율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이숙향(1999)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실에서 통제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발화 상황에서 녹음된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하여, 다른 지역 방언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제주방언의 문장 유형별 억양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험 자료 및 방법

2.1 피험자

제주에서 출생하여 자란 70대 이상으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각 지역 토박이들로 선정하였다. 제주방언의 하위방언에 관한 언어지도를 말할 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남 지방’과 ‘산북 지방’ 2개의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권과 서귀포권, 그리고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4개의 지역별 언어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방언의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각 시군별로 4곳¹⁾을 선정, 각 지역별로 남, 여 1명씩 총 32명을 대상으로 녹음을 실시하였다.

2.2 녹음 및 분석

소음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피험자에게 예문이 적혀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보통 발화 속도로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유도한 후 피험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마이크는 Sony사의 ECM-MSD1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프리앰프(Pre-Amplifier)로는 Creative Technology사의 모델명 SB0300을 이용하였다. Adobe Audition 1.5를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22,000Hz의 표본율(sampling rate)로 직접 저장한 후 편집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음향 분석 프로그램 WaveSurfer 1.7.5를 사용하여 피치와 파형, 스펙트로그램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분석하였다.

2.3 분석 예문

녹음 문장은 문장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 2문장씩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피험자 32명이 발화한 한 문장 유형당 발화 개수는 모두 64개이다.

1) 제주시는 건입, 노형, 도남, 영평동, 서귀포시는 법환, 보복, 토평, 하원동, 북제주군은 고산, 남읍, 덕천, 평대리, 남제주군은 수산, 신평, 의귀, 화순리로 나누어 녹음하였다.

1) 평서문

- ① 우리 딸은 시에 살았다. (우리 딸은 시에 살아요.)
- ② 여기서 쪽 가면 있다. (여기서 쪽 가면 있어요.)

2) 의문문

a) 가부 의문문

- ③ 밭디 감수과? (밭에 가세요?)
- ④ 밥 먹었수과? (밥 먹었어요?)

b) 의문사 의문문

- ⑤ 언제 밭디 갈거과? (언제 밭에 갈거예요?)
- ⑥ 이거 누게 옷이라? (이거 누구 옷이에요?)

c) 선택 의문문

- ⑦ 밥 먹쿠과 국수 먹쿠과? (밥 먹을래요 국수 먹을래요?)
- ⑧ 커피 허쿠과 쥬스 허쿠과? (커피 할래요 쥬스 할래요?)

d) 수사 의문문

- ⑨ 일허레 밭디 가야 할 거 아니라? (일하러 밭에 가야 할 거 아니예요?)
- ⑩ 딸네 집에 가야 할 거 아니라? (딸네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예요?)

3) 명령문

- ⑪ 이거 먹으라. (이거 먹어라)
- ⑫ 집에 감싸. (집에 가세요.)

4) 청유문

- ⑬ 우리 흔저 일허게. (우리 빨리 일하자.)
- ⑭ 이거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3. 분석 결과

제주방언의 하위방언에서 지역에 따른 억양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데, 동쪽 산남 지역의 말이 억양이 부

드럽고 서쪽 산북 지역의 말이 억양이 좀 거칠고 속도도 빠르다는 언급은 보인다.2)

본고에서는 제주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억양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실험 결과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는 지역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분석에서 제시하는 그림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각 문장 유형을 대표하는 경계 성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억양곡선을 선택한 것이다. 그림에서 피치 유형은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억양구 경계성조가 없이는 마지막 분절음을 대상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앞쪽은 해독의 편의를 위해 한글로 표기하였다. 그림을 관통하는 긴 수직선이 마지막 분절음의 시작이다.

3.1 평서문

서울말 평서문의 경우 강제구 시작 부분의 F_0 (기본주파수)에서부터 억양구의 마지막 강제구에 걸쳐 나타나는 완만한 하강성조인 L%이 일반적인 경계성조로 여겨진다. 이호영(1996)은 서울말 평서문에서 사무적인 태도에는 낮은 수평조가 나타나고, 친절한 태도에는 낮내림조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제주 방언의 평서문에서는 HL%와 L%가 대표적인 경계 성조 억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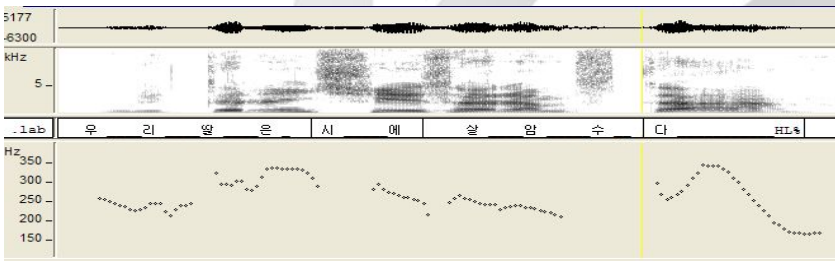


그림1. 제주시 노형동 70대 여성의 평서문 억양구경계성조

2) 강정희 (1988), 「제주방언연구」 p.22

그림1과 2는 제주방언 평서문의 대표적인 경계성조인 HL%과 L%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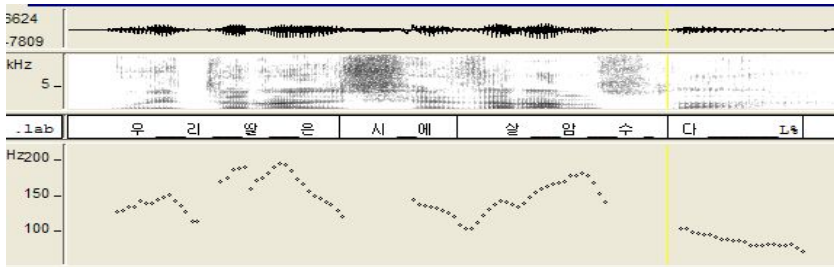


그림2. 제주시 도남동 70대 남성의 평서문 억양구경계성조

제주방언 평서문 총 64번의 발화 가운데 HL%가 48번 출현하여 75.0%를 차지하고, L%은 12번 나타나 18.8%를 차지하고 있다. 경계 성조 L%는 HL%에 비해 다소 불친절하고 무뎠직한 느낌을 준다.

이 외에도 HL% 유형의 변형인 HLH%가 3번, HLHL%가 1번 나타나고 있다.

3.2 의문문

의문문은 그 형식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가부의문문, 의문사의문문, 선택의 문문, 수사의문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억양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3.2.1 가부 의문문

서울말 가부의문문에서 화자가 정보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단순 질문의 경우에는 높은 수평조(H%)가 없히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확인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낮오름조(LH%)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가부의문문의 경우 피험자에게 ③ 밭디 감수과? 와 ④ 밥 먹었수과? 두 문장을 제시했는데, 각 피험자들이 이 문장을 단순질문으로 인식하느냐 혹은 확인질문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억양을 얹어 발화하였다. 그 중 일부 피험자의 경우 한 문장은 단순질문으로 한 문장은 확인질문으로 인식하여 전혀 다른 억양으로 발화하기도 하였다.

제주방언에서 피험자가 이 문장을 단순 질문으로 인식한 경우는 대부분 LH%의 경계 성조가 나타나고 있다. LH%는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이 시작된 후에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H%보다는 상승의 시작은 늦지만 급격한 상승을 갖는 성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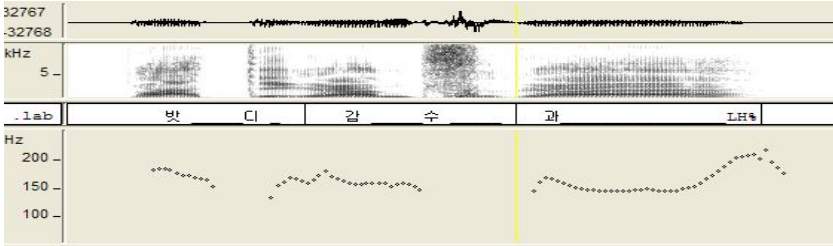


그림3. 북제주군 고산리 80대 여성의 가부의문문(단순질문) 억양구경계성조

반면 피험자가 이 문장을 확인 질문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단순 질문의 억양 형태와는 정반대인 HL%의 경계 성조가 나타난다. 평서문의 HL% 경계성조와 마찬가지로 억양구 마지막 둘째 음절에서 저조가 실현되고 뒤이어 마지막 음절에서 HL%가 실현되지만 음높이의 상승 정도가 평서문에는 미치지 못하여 피치변화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계성조 음높이는 서울말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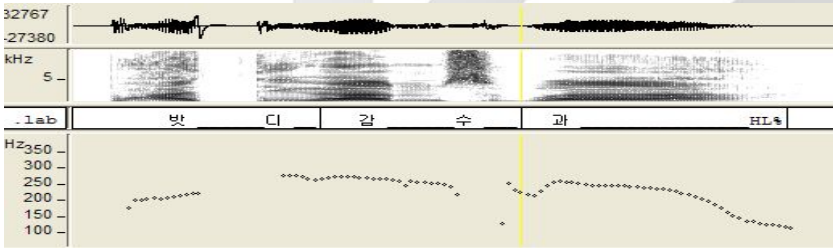


그림4. 남제주군 의귀리 70대 여성의 가부의문문(확인질문) 억양구경계성조

이 외에도 단순질문의 경우 LHL%, LHLH%, 확인질문의 경우 HLH%, HLHL% 등 다양한 경계성조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LH%나 HL%같은 단순한 성

조형보다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묻는 느낌이 강하다. 또한, 확인질문의 경우 L%도 4번 나타나는데 이 경계성조 유형은 보다 무뚝뚝한 어감을 지닌다

3.2.2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의문문의 억양은 일반적으로 가부의문문의 억양패턴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제주방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단순질문 형태의 가부의문문의 으뜸조와는 반대인 HL% 경계성조가 주로 나타나는데, 전체 의문사의문문 가운데 51번 나타나 79.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고성조 계열로 H%가 2번, HLH%가 6번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저성조 계열로는 L%가 2번 HLHL%가 3번 출현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의문사 의문문의 HL% 패턴은 가부의문문의 HL%보다 구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였다가 하강하여 그 음높이의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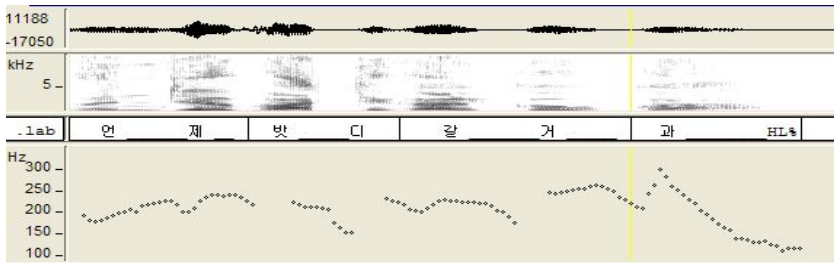


그림5. 제주시 건입동 70대 남성의 의문사의문문 억양구경계성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억양구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중요한 음성학적 근거 중 하나가 구말 장음화인데, 7·80대 제주토박이 말에서 나타나는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현상은 표준어인 서울말과 비교해 볼 때 그 길이가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긴 장음화 현상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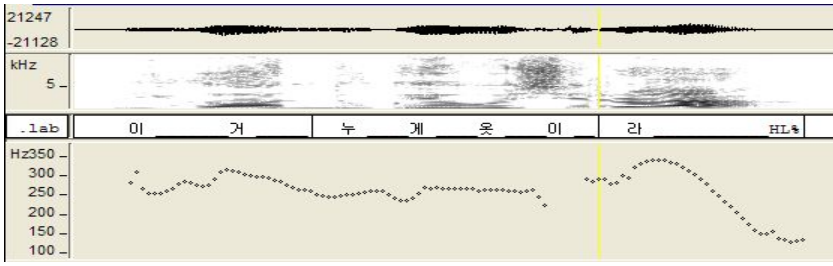


그림6. 남제주군 신평리 80대 여성의 의문사의문문 억양구경계성조

3.2.3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문문이다. 이번 실험의 예문은 두 개의 선택항을 제시하여 하나의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장으로 앞·뒤 두 개의 억양구로 구성되었다. 서울말에서는 선택의문문의 앞 억양구 말에 가운데수평조나 낮오름조가 없히고, 뒤 억양구에는 주로 낮내림조가 나타난다.

실험 결과 제주 방언의 앞 억양구에서는 H% 경계성조가 38번 나타나 59.4%를 차지하고, LH%가 12번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H% 나 L% 로 딱히 구분하기 힘든 유형도 8번 나타나고, L%도 6번 출현하고 있다.

뒤 억양구의 경계성조로는 각각 L%이 39번 (60.9%), HL%이 23번 (35.9%) 출현하여 선택의문문 뒤 억양구의 대표적인 경계성조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HLH%도 2번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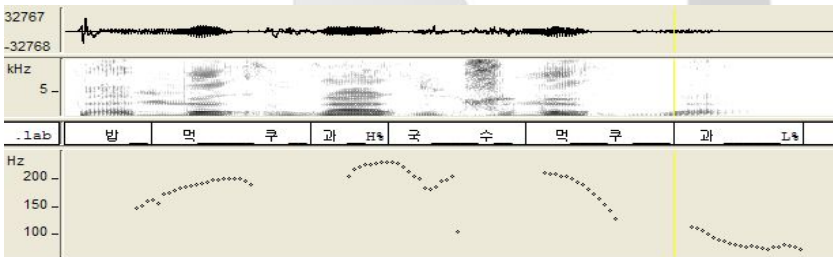


그림7. 남제주군 수산리 7·80대 남성의 선택의문문 억양구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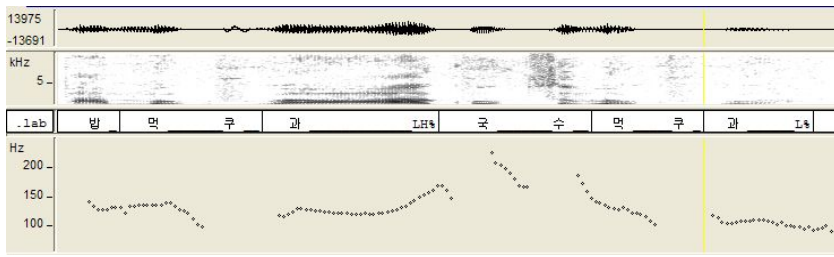


그림8. 북제주군 남읍리 70대 남성의 선택의문문 억양구경계성조

그림7과 8에서 선택의문문의 앞 억양구와 뒤 억양구의 음높이 곡선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억양구는 음높이가 저조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높아지는데 반해, 뒤 억양구에서는 강세구 첫음절이 경음이나 격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고조에서 시작하여 구말까지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택의문문에서 구말 장음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앞, 뒤 두 억양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앞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길이가 뒤 억양구보다 더 긴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제주방언 구말 음절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지만, 특히 앞 억양구의 장음화 현상은 7·80대 토박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관찰된다.

3.2.4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말하는 이의 질문이 대답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평서문으로 말할 때보다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문문으로, 서울말에서는 주로 낮은 수평조나 낮내림조 및 오르내림조를 사용한다.

제주방언의 수사의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계성조는 LH%(26번, 40.6%)와 L%(25번, 39.1%)로 나타났다. 이 문장유형에서는 LH%와 L% 억양패턴이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LH%는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고, L%은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느낌이다. 이외에도 LHL%(2번), HL%(2번), HLH%(5번), HLHL%(2번), LHLH%(2번) 등의 경계성조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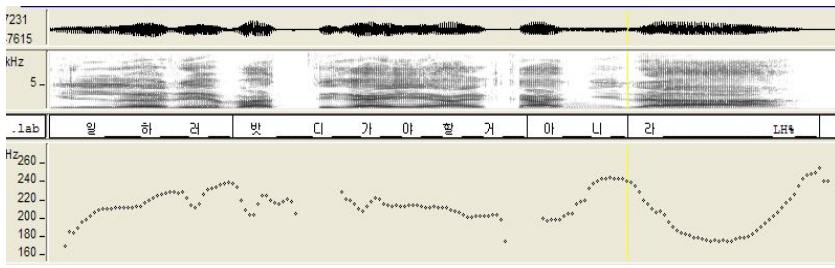


그림9. 북제주군 남읍리 70대 여성의 수사어문문 억양구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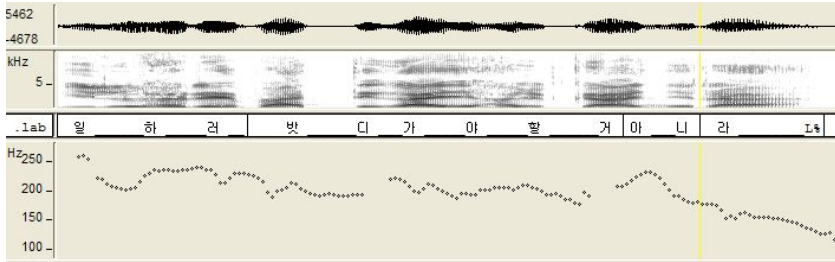


그림10. 서귀포시 하원동 70대 여성의 수사어문문 억양구경계성조

3.3 명령문

서울말에서 권위를 가지고 청자에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수평조나 낮내림조, 오르내림조를 사용하고 부탁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는 낮오름조나 내리오름조를 사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방언에서는 내림조인 HL%이 총 53번 출현하여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억양구말 음절의 피치가 평서문만큼 높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L% 유형이 7번 나타나고 있는데 HL%는 대체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어감을 지니는 반면, L%은 부탁이나 권유의 어감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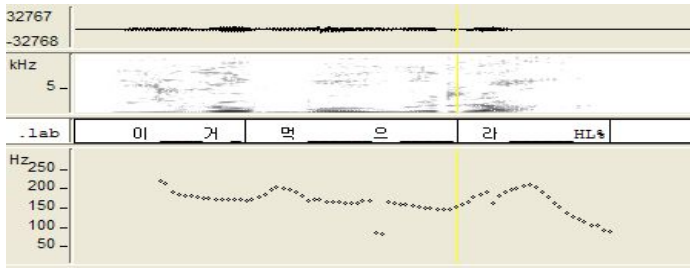


그림11. 서귀포시 보목동 70대 남성의 명령문 억양구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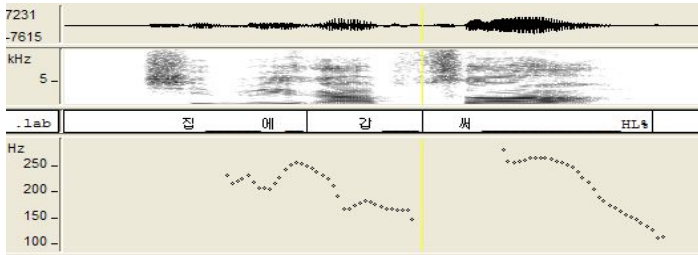


그림12. 북제주군 남읍리 70대 여성의 명령문 억양구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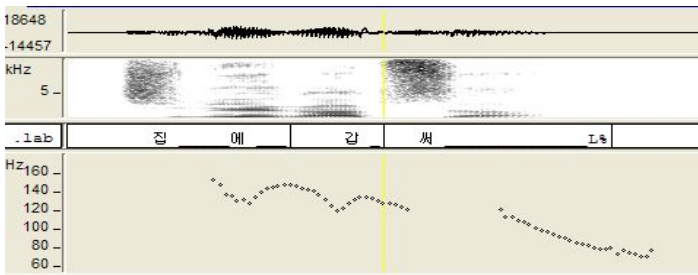


그림13. 서귀포시 범환동 70대 남성의 명령문 억양구경계성조

이 외에도 HLHL%이 2번, HLH%, H%도 각각 1번씩 출현한다.

3.4 청유문

청유문에서도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HL% 성조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빈도는 명령문에 훨씬 못 미쳐 42.2%(27번)를 차지한다. 반면 명령문과는 달리 L%가 21번이나 나타나 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 방언 청유문에서는 명령문과는 달리 경계성조 L%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유문이 지니는 부탁이나 권유의 어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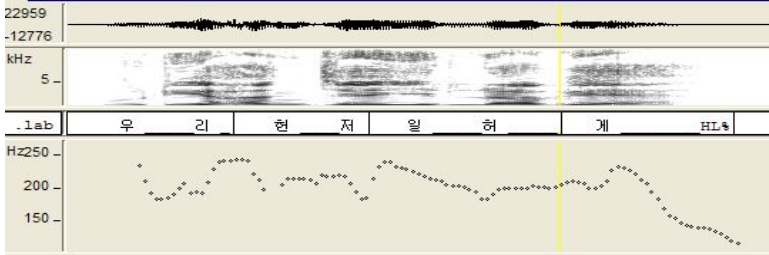


그림14. 남제주군화순리 80대여성의 청유문 억양구경계역양

이 외에도 HLHL%가 5번, LHL%가 6번, LH%와 LHLHL%가 각각 2번, HLH%가 1번 등으로 다양한 경계성조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방언 청유문에서는 이렇게 다른 문장유형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복잡한 형태의 억양패턴이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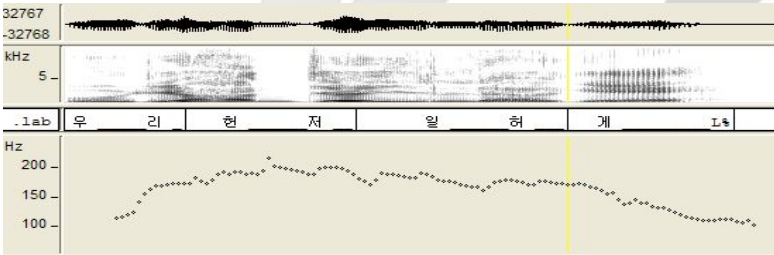


그림15. 북제주군 고산리 80대 여성의 청유문 억양구경계역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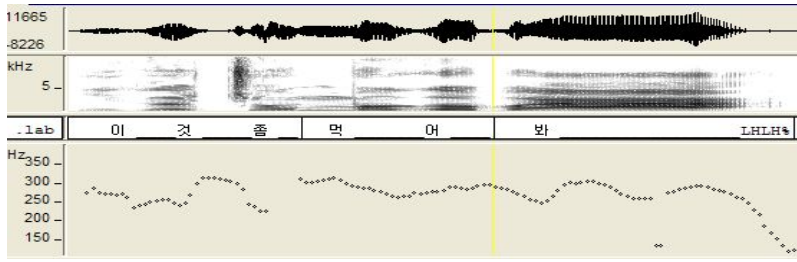


그림16. 제주시 건입동 70대 여성의 청유문 억양구경계역양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는 서울말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비슷한 H%, L%, HL%, LH%, LHL%, HLH%, HLHL%, LHLH%, LHLHL%, HLHLH% 등 다양한 성조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문장유형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계성조 유형은 서울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주방언이 특유의 억양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서울말과 제주방언의 문장유형별로 쓰이는 대표적 억양을 간략하게 도표를 통하여 비교해보도록 하자. 아래의 도표에서 낮내림조, 수평조, 오르내림조 등은 음성학적 기술이나 여기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본문에서 사용한 경계 억양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해 보도록 하겠다.

문장유형		서울말	제주 방언
평서문		L(완만한하강조) HL%(낮내림조)	HL%(높내림조), L%
의문문	가 부	H%(단순질문) LH%(확인질문)	LH%(단순질문) HL%(확인질문)
	의문사	가운데 수평조 HL%(낮내림조)	HL%(높내림조)
	선 택	M%, LH%(앞억양구) HL%(낮내림조, 뒤억양구)	H%, LH%(앞억양구) L%, HL%(높내림조, 뒤억양구)
	수 사	HL%(낮내림조)	LH%, L%
명령문		L%(낮은 수평조) HL%(낮내림조)	HL%(낮내림조)
칭유문		L%(낮은 수평조) HL%(낮내림조)	HL%(낮내림조) L%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억양구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중요한 음성학적 근거가 구말 장음화인데, 7·80대 제주토박이 말에서 나타나는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현상은 표준어인 서울말과 비교해 볼 때 그 길이가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의문문의 경우 앞 억양구말 음절의 길이가 뒤 억양구말 음절의 길이가 긴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방언의 경계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김선희(1998). “대구방언의 억양구조의 변이요인”, 「말소리」 제35-36호, 49-61, 대한음성학회.
- 송민규·이영배(2002).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에 대한 연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연구」, 245-264, 월인.
- 이병운(1997).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제7집, 79-103, 우리말학회.
- 이병운(1998). “중부방언, 경남 방언, 전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제8집, 1-62, 우리말학회.

이숙향(1999).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369-372, 우리말학회.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Jun, Sun-Ah(2000).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고미숙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전화번호: (064)754-3298

전자우편: gaomsh@hanmail.net

투고논문접수일	2005년 8월 13일
논문심사일	2005년 8월 16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8일

K C I